

교육부 고시 개정이 대학 현장실습학기제에 미치는 영향: 대학 현장실습 운영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태형*·유영삼**†·박지성***·황의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조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 박사후 연구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PP센터 부센터장

Effects of the Amendment of Regul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Co-op: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Co-op Operators

Kim, Tae-Hyung*·Yoo, Youngsam**†·Park, Jisung***·Hwang, Eui-Taek****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Post Doctoral Researcher, Center for Employment & Competency Enhancement Studie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Head of IPP Center, IPP Cente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BSTRACT

On July 6, 2021,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ised and announced the operating regulations of the undergraduate co-op with the aim of protecting students rights and student-centered operation based on mutual benefits for students and institu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niversities' perceptions against the amendment of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into universities/college, regions. According to a survey of 75 KACE, we found that colleges are more difficult than universities in terms of administrative work, company participation, reduced opportunities for co-op, and managing participating companies. Next, most of the regional differences in difficulties were not significant, and only the decline in company participation rate was more difficult in Daegyong/Gangwon/Chungcheong/Jeju than in the metropolitan area. Finally, policy directions such as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practical support expens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any, tax benefits for institutions, and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job training were presented.

Keywords: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Amendment of regul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Regional differences

1. 서 론

오늘날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 교육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등이 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무관한 직무 종사 및 저비용 노동력 제공수단으로의 변질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부는 지난 2021년 7월 6일, 학생 보호 및 학생 중심적 운영과 학생과 실습기관의 상호 유익 증대라는 취지 아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은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현장실습의 내실과 학생 권익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동안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산재보험 제공이 의무화되고, 실습지원비도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소위 '열정페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한 목적성에 기반한 고시 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기업과 대학 모두 우려를 표명하는 실정이다. 먼저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75% 수준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게 할 경우(표준형),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직접 고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감소로 이

Received February 3, 2023; Revised April 26, 2023

Accepted May 4, 2023

† Corresponding Author: netgen00@gmail.com

©2023 Kore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어저 대학생들의 실습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로 인해 대학의 경우에도 현장실습 참여 기관을 발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서울경제, 2021). 실제 교육부의 ‘2020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학협력교육으로서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81,822명에서 2016년 160,32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153,182명, 2018년 145,221명, 2019년 128,054명, 2020년 87,79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실습이 어려워지면서 전년 대비 31.4%나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대학 차원의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고시개정이 현장실습 운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학 특성별로 고시개정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대/전문대와 권역(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호남/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히 고시 개정이라는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한 신속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t-test, ANOVA 등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였다. 셋째,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부 고시 개정 취지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들을 통해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현장실습 관련 논의들의 외연을 확대하고, 실무적으로는 교육부 고시 개정이 의도한 효과가 보다 창출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및 가설도출

1. 현장실습의 개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대학들은 기업(혹은 기관)과 연계된 외부 활동 경험을 학생이 갖고 있으면, 이를 모두 ‘현장실습’으로 구분하거나 ‘현장실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즉, 넓은 의미의 체험/경험학습으로 구분되는 활동들을 국내에서는 현장실습으로 인식해 왔으며, 그로 인해 고등교육 단계의 현장실습인 광의의 일통합학습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1). 일통합학습(Work-Integrated Learning)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직업세계와 연결시켜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습에 기반한 경험적 학습 형태인 협력적 직업훈련(Cooperative education work-terms), 인턴십, 실습, 연구학기 또는 교육봉사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Khampirat & McRAE, 2016; Rowe & Zegwaard, 2017). 일통합학습은 현직 실무자들이 실제 일하는 업무 맥락(환경) 속에 학생을 배치함으로써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을 실무에 적용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실

무경험을 함양케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Kemp et al., 2021).

일통합학습은 비판적 사고, 협력, 가치창출과 같은 미래 요구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mith et al., 2019). 또한, 다양한 일통합학습의 형태 가운데 협력적 직업훈련은 학생(고용 기회, 잠재적 고용주와의 접촉,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입사지원 및 면접경험), 기업(학생 활용에 따른 이익, 대학 관계자와의 협력, 대학시설 활용), 대학(산업계로부터의 인정, 교육과정 환류) 각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Cullen, 2005).

기본적으로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수업의 형태여야 한다(고등교육법 제22조, 2022). 따라서 일통합학습의 형태 중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인턴 또는 인턴십과 같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형태가 아닌 방식은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점의 인정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고등교육법 제23조, 2022).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의 하나인 ‘현장실습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 2022, 동법 시행령, 2023).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에서 교과활동을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체험학습의 형태이며, 일통합학습 영역 중 교실 기반 교육과 실제 업무 경험을 결합하는 구조화된 형태(Cooperative Education, Co-op)를 의미한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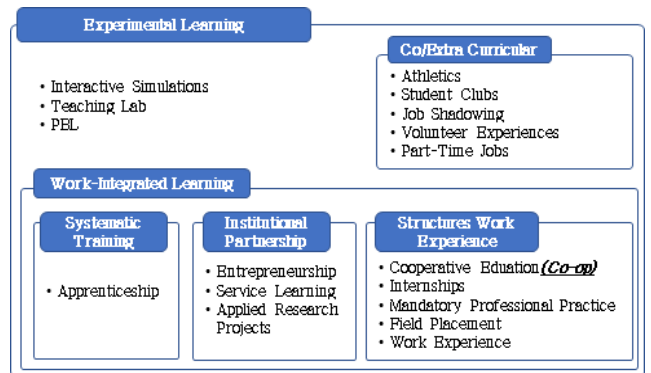


Fig. 1. Structure of Work-Integrated Learning

현장실습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구분된다. 단기현장실습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서 4주 또는 8주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 및 조직체험, 전공실무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단기간이라도 기업조직을 체험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실습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로는 미흡하며, 경우에 따라 단순업무로의 배치로 인하여 동기부여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9).

산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OJT(On-the-Job Training) 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학생들에게 단순작업 이외의 실질적 업무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워 실무 체험 및 학습효과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9). 학생들은 단기현장실습을 단순히 파트타임 업무나 '이력서 빈칸 채우기식' 과외활동 또는,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학점 채우기 정도로만 인식하는 등 실무 체험 및 학습에 대한 동기마저 저조한 현실이다(박철우 외, 2014).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단기현장실습이라 하더라도 현장실습 열정페이 근절을 통한 학생 권익 강화 및 체계적인 실습운영 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낮은 실습지원비 및 높은 직무 교육시간 배정, 기타 자율적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합리적인 형태와 내용 등 각종 이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장기현장실습은 기업인턴, 단기현장실습 등 기존 현장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의 현장훈련을 통해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산학협력 훈련제도이다. 특히, 대학교육과 기업 인력수요 간 미스매치가 고질적인 상황에서,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풍부한 실무경험 및 조직체험 등을 바탕으로 실무능력을 신입사원 선발 1순위로 꼽는 채용 트렌드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된다.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학업적 성과·전문적 성과·개인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Guest, 2004).

2. 교육부 고시 개정의 내용

이병렬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주요 고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화 및 표준적 운영절차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과 자율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배포된 운영절차 및 양식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학생 권익 강화 및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항으로 참여 학생에 대한 단계별 점검, 각종 교육(사전교육 및 사고·재해 및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참여 학생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개정하였고, 필요에 따라 고용계약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사전교육, 중간 및 결과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시간을 전체 실습시간의 10% ~ 25%로 배정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에 대한 사항이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참여 학생에 부여되는 직무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또한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매우 제한적으

Table 1 Major amendments to the operating regulations for Co-op

구분	주요 내용
체계화 및 표준적 운영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학기제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이원화 - 별도 법령 및 제도하의 의무 현장실습 제외 표준화된 운영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절차 및 양식 배포 - 전공적합성, 자격 요건 등 고려한 학생 추천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부합한 학생 선발
학생 권익 강화 및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학생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간 배정(전체 실습시간의 10%~25%) - 실습 중 사고·재해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부적정 실습 상황에 대한 조치 보험가입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의무 가입 -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의무 가입 현장실습학기제 근로계약 체결 가능
현장실습지원비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 원칙 - 요건 충족 시 제한적 무급 허용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복고,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 이내) 허용

로 무급 운영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이다. 국가재난 발생 시에는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복고 또는 대체과목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 이내)이 허용된다(이병렬 외, 202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은 운영기간과 시간, 그리고 실습지원비이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일 기준으로 하고, 실습기관의 보편적인 근무제 기준인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시간 기준이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는 산학협력법 제 11조의 3항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하며,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와 같은 현물 형태나 장학금 형태가 아닌 금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2021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고시에서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공시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하고, 실제 출석일이 20일 이상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만 공시할 수 있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1).

반면,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21)에 따르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는 달리 대학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현장실습 수업방법을 의미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특성과 상황 등에 따라 운영 기간 및 시간, 실습

지원비, 서식 등에 있어서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책임은 해당 학교(장)에 있기 때문에 기존 현장실습 제도에서 발생하였던 열정페이 등의 노동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실습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시간 할애, 운영 여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기간 및 시간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상황 및 여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실습 지원비 기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같이 의무사항이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동일한 산출 및 지급기준이 적용된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1).

Table 2 Comparison of Standard and Autonomous Co-op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공시 대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미공시)
운영 형태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와 동일	• 협의하여 설정 운영 - 간헐적, 비연속적, 단시간 등 운영 가능
실습 지원비	• 의무 지급 - 최저임금 75% 이상 - 교육시간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	• 자율성 적용 - 교육시간 비율에 따른 기준 적용 - 세부 기준 준수 시 무급 운영 가능
서식	• 표준 서식 적용 - 표준 운영계획서, 협약서, 출석/평가표 서식 사용	• 학교별 서식 적용 - 모든 서식은 학교별 자체 서식 사용
비고	• 노동문제의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 자율성, 다양성을 위한 학교장 책임의 운영 기준

3. 교육부 고시 개정에 의한 주요 쟁점사항

교육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각 대학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네 가지 측면(기업 참여율 감소, 대학 행정업무 가중, 대학 재정부담,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 측면은 대학 정보공시 대상이 변경되어 기업 참여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정보공시에 포함되는 대상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운영된 사항 중 실제 출석일이 20일 이상으로 운영된 사항만이 해당된다(교육부, 2021). 하지만,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에 따르면,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 참여율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병렬 외, 2021;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1).

두 번째 쟁점으로는 대학 차원의 행정업무 가중을 들 수 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체계화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절차를 의

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그로 인해 표준 운영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에 따른 표준화 된 양식을 준용해야 하는 등 각종 행정업무의 가중이 예상된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1). 많은 대학들에서 현장실습학기제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이 1-2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업무량 증가는 현재 인력들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실제 운영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으로 대학 재정부담을 들 수 있다. 2022년 7월에 공정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지침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국고지원금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국고지원금은 실습지원비뿐만 아닌 참여학생 소요경비(교통비, 숙박비), 학생관리비 또는 참여기업 멘토비 등에 활용되었으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지원비 및 소요경비 등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원이 일체 불가하다. 따라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상 재정부담을 예상할 수 있다.

네 번째 쟁점으로는 멘토 수당 지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참여기업 관리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멘토 수당 자체가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참여기업의 직무교육 담당자가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비중이 전체 업무량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으며(Cullen, 2005),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조차도 기업 근로자의 교육 및 평가와 같은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이병렬 외, 2021),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보상 축소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상 참여기업 관리의 난항이 예상된다.

4. 대학 특성별 현장실습 운영

고시 개정으로 인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상의 영향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유형(일반대, 전문대)에 따른 차이를 들 수 있다. 전문대학과 일반(4년제)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문대학은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가장 큰 교육 목적으로 두고 일찍이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강경중·이종상, 2003). 실제로 2016년부터 COVID-19의 영향을 받기 직전인 2019년까지의 전문대학교 연도별 평균 현장실습 참여율은 전문대학이 4주과정 13.6%, 8주과정 0.8%인 반면, 일반대학은 4주과정 1.8%, 8주과정 1.1%로 나타나 전문대학의 현장실습 참여 규모가 일반대보다 상당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1). 반면, 장후은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의 현장실습 관련 조직 역량이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를 중심으로 현장실습 행정업무 가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개정된 고시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고시개정 이후의 추가적인 업무가중 문제가 전문대를 중심으로 대두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구분에 따라 고시 개정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현장실습 참여율의 추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대학의 현장실습 참여율은 현장실습지원비 문제가 대두된 2018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감소세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1). 2020년 기준 현장실습 참여율은 전문대가 4주과정 5.9%, 8주과정 0.3%로 2016년 대비 대폭 축소된 반면, 일반대학은 4주과정 1.2%, 8주과정 1.0%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현장실습 참여율 또한, 전문대 0.7%, 일반대 0.5%(대학정보공시, 2022)로 전문대 중심의 현장실습 참여율 축소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 구분에 따른 차이는 재정부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2021)의 ‘2022년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급감과 동시에 등록금 중심의 대학 재정 구조로 인해 국내 대학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2022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에 따르면, 일반대-전문대 간 재정 부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대학의 1인당 교육(투자)비 즉, 재학생의 교육을 위해 투자한 비용(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은 일반대학이 1,708.4만 원이며, 전문대학은 1,118.4만 원으로 일반대 대비 지방대의 1인당 교육비 수준이 약 65.5%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르는 대학의 재정부담 수준도 대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고시 개정의 쟁점과 대학 유형에 따른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교육부 고시 개정 이후 겪는 어려움에 전문대와 일반대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에 전문대와 일반대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 현장실습 운영 담당부서가 겪는 행정업무의 가중에 전문대와 일반대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 현장실습 관련 재정부담에 전문대와 일반대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4 : 재학생의 현장실습 기회 축소에 전문대와 일반대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5 :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율 감소에 전문대와 일반대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상의 영향은 대학 소재에 따른 차이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부의 ‘2022년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계획’에 따르면, 국내 대학은 지방권 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상 위기를 겪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 이와 같은 현상은 학령인구 급감, 수도권 위주의 학생 쏠림 현상 그리고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 재정의 구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교육부, 2021). 1인당 교육비 수준에 있어서 일반대의 수도권(1,868.8만 원)-비수도권(1,580.1만 원) 격차는 약 84.6% 수준이었다(대학정보공시, 2022).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르는 대학의 재정부담 수준에 있어서 대학 소재에 따라 차이가 예상된다.

끝으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지역별 기업 수는 수도권(46.6%)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기업 및 중기업의 비중 또한 수도권(58.6%)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오히려 소기업 등 영세기업의 지역 전체 기업 수 대비 비율이 수도권(98.0%)에 비해 98.8%(0.8%p)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현장실습은 대학 소재 권역에 제한되지 않으나, 재학생의 수학능력과 기업 인접성 등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모집에 있어 수도권 소재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고시 개정 이후 지방권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기업 모집이 수도권에 비해 불리해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따른 현장실습 기회의 차이로 인해 담당부서의 업무 가중 측면도 지역적인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고시 개정의 쟁점과 대학 권역에 따른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 교육부 고시 개정 이후 겪는 어려움에는 권역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에 권역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 현장실습 운영 담당부서가 겪는 행정업무의 가중에 권역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 현장실습 관련 재정부담에 권역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 재학생의 현장실습 기회 축소에 권역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5 :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율 감소에 권역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고시 개정 이후 대학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KACE(Korea Association for Co-operative & Work-integrated Education, 한국산학연계현장실습협회) 회원 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22년 8월 12일, 연구진이 KACE 회장과 사무국장을 만나 본 과제의 목적,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회장으로부터 KACE 회원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협조를 확인받은 후, 모바일 웹 조사방식(Computer Assisted Mobile Interview)의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이 중 설문은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45개 교에 설문이 배포되었고, 75개 교가 응답하였다(응답률 51.7%).

2. 설문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문 내용은 학술논문 스타일의 설문을 지양하고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현장실습 시작 시기, 필수/선택 여부, 참여 학생 규모, 학점 인정 여부 등 각 대학의 현장실습에 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교육부 고시 개정 이후 겪고 있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상 애로사항과 참여기업으로부터 전해 들은 애로사항에 대해 5점 척도(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매우 심각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75명의 소속 대학교 현황은 Table 3과 같다. 전체 75개 대학 중 소속 대학의 구분 및 권역에 대해 71명(무응답 4명, 5.3%)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일반대는 50개(70.4%) 교였으며, 전문대학은 21개 교로 29.6%를 차지했다. 대학의 권역별 현황으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이 30개(42.3%) 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경·강원권(19개, 26.8%), 충청권(10개, 14.1%), 동남권(8개, 11.3%), 호남·제주권(4개, 5.6%)의 순이었다.

현장실습 시작 시기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총 65명(무응답 10명, 13.3%)이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1990년대('92년 ~ '99년)는 7개(10.8%) 교, 2000년대('00년 ~ '09년) 9개(13.8%)교,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Subjects		n	%	valid %
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50	66.7	70.4
	College	21	28.0	29.6
	No answer	4	5.3	-
Regions	Metropolitan	30	40.0	42.3
	Daegyong/Gangwon	19	25.3	26.8
	Chungcheong	10	13.3	14.1
	Dongnam	8	10.7	11.3
	Honam/Jeju	4	5.3	5.6
	No answer	4	5.3	-
When to start co-op	1990s	7	9.3	10.8
	2000s	9	12.0	13.8
	2010s	19	25.3	29.2
	2020s	30	40.0	46.2
	No answer	10	13.3	-
Required /Elective	elective	46	61.3	62.2
	partially elective	25	33.3	33.8
	required	3	4.0	4.1
	No answer	1	5.3	-
Size of Participati- on (2022)	~ 100 people	8	20.0	21.1
	100 ~ 200 people	18	45.0	47.4
	200 ~ 300 people	6	15.0	15.8
	300 people ~	6	15.0	15.8
	No answer	2	5.0	-
합계		75	100.0	

2010년대('11년 ~ '19년) 19개(29.2%) 교, 2020년대('20년 ~ '22년) 30개(46.2%)로 최근 3년 이내에 현장실습을 시작한 대학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대학 현장실습의 선택·필수(교과목) 여부에 대해 74명(무응답 1명, 1.3%)이 응답하였으며, 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46개(62.2%) 교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 교과목에 한하여 필수로 운영하는 대학이 25개(33.8%)였고,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3개(4.1%)로 가장 작았다. 소속 대학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 규모별 현황은 2022년 기준 100명대(100명 이상, 200명 미만)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이 18개(47.4%) 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0명 미만인 대학이 8개(20.0%) 교로 뒤를 이었다.

2. 교육부 고시 개정 이후 애로사항 분석

교육부의 고시개정 이후 대학이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함에 있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해 확인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전반적으로 각 대학은 고시 개정 이후 현장실습 담당부서의 행정업무가 가중된 점과 기업 참여가 축소된 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재학생들의 실습 참여 기회가 축소된 점과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겪는 애로사

항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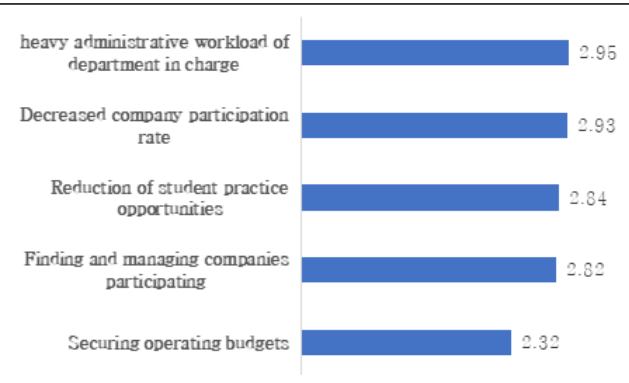


Fig. 2 The severity of each difficulty after the revis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operating regulations

교육부 고시 개정으로 인한 담당부서 업무 과중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74명이 응답하였고, 전반적으로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도로 응답한 비율이 총 74%로 가장 많았다. 대학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에서 많아(각 18%p, 9%p) 전문대가 일반대학보다 담당부서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것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4).

Table 4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heavy administrative workload of department in charge)

(Unit: n(%))

Scale	Total	Uni./College			Regions ¹⁾				
		Uni. (A)	Col (B)	A-B	a	b	c	d	e
1)	2(3)	2(4)	-	4%p	1(3)	1(10)	-	-	-
2)	1(1)	1(2)	-	2%p	1(3)	-	-	-	-
3)	15(20)	13(26)	1(5)	21%p	6(20)	-	3(16)	3(38)	2(50)
4)	37(49)	22(44)	13(62)	-18%p	16(53)	5(50)	10(53)	3(38)	1(25)
5)	19(25)	12(24)	7(33)	-9%p	6(20)	4(40)	6(32)	2(25)	1(25)

1) not serious at all. 2) not serious. 3) normal. 4) serious. 5) very serious.

교육부 고시 개정으로 인한 기업 참여율 감소에 대해서도 74명이 응답하였고,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도로 응답한 비율이 총 74%로 가장 많았다. 대학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에서 많아(각각 2%p, 30%p) 전문대가 일반대학보다 기업 참여율 감

1) a=Metropolitan, b=Chungcheong, c=Daegyong/Gangwon, d=Dongnam, e=Honam/Jeju

소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호남·제주, 대경·강원, 충청, 동남, 수도권 순으로 심각하게 응답하였다(Table 5).

Table 5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Decreased company participation rate)

(Unit: n(%))

Scale	Total	Uni./College			Regions				
		Uni. (A)	Col (B)	A-B	a	b	c	d	e
1)	1(1)	1(2)	-	2%p	1(3)	-	-	-	-
2)	4(5)	4(8)	-	8%p	3(10)	1(10)	-	-	-
3)	13(17)	11(22)	-	22%p	7(23)	-	2(11)	2(25)	-
4)	37(49)	25(50)	11(52)	-2%p	16(53)	5(50)	11(58)	3(38)	1(25)
5)	19(25)	9(18)	10(48)	-30%p	3(10)	4(40)	6(32)	3(38)	3(75)

1) not serious at all. 2) not serious. 3) normal. 4) serious. 5) very serious.

교육부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 축소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73명이 응답하였고, 전반적으로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도로 응답한 비율이 총 73%로 가장 많았다. 대학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에서 많아(각각 11%p, 15%p) 전문대가 일반대학보다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가 어렵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역 소재 대학에서 재학생 실습기회 축소에 따른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Table 6).

Table 6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Reduction of student practice opportunities)

(Unit: n(%))

Scale	Total	Uni./College			Regions				
		Uni. (A)	Col (B)	A-B	a	b	c	d	e
1)	1(1)	1(2)	-	2%p	1(3)	-	-	-	-
2)	7(9)	5(10)	-	10%p	4(13)	1(11)	-	-	-
3)	11(15)	9(18)	1(5)	13%p	5(17)	1(11)	3(16)	1(13)	-
4)	38(51)	25(51)	13(62)	-11%p	15(50)	5(56)	10(53)	6(75)	2(50)
5)	16(21)	9(18)	7(33)	-15%p	5(17)	2(22)	6(32)	1(13)	2(50)

1) not serious at all. 2) not serious. 3) normal. 4) serious. 5) very serious.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74명이 응답하였고, 이 또한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도로 응답한 비율이 총 72%로 가장 많았다. 대학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문대가 일반대학보다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대학의 경우 응답 대학의 12%만이 위 질문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의 경

우 응답 대학의 33%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로는 지방대학이 수도권대학 대비 현장실습 참여 기업 발굴 및 관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Table 7).

Table 7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Finding and managing companies participating)

(Unit: n(%))

Scale	Total	Uni./College			Regions				
		Uni. (A)	Col (B)	A-B	a	b	c	d	e
1)	1(1)	1(2)	-	2%p	1(3)	-	-	-	-
2)	4(5)	4(6)	-	6%p	1(3)	2(20)	1(5)	-	-
3)	15(20)	12(23)	3(14)	9%p	9(30)	1(10)	2(11)	2(25)	-
4)	41(55)	28(58)	11(52)	6%p	17(57)	5(50)	12(63)	4(50)	2(50)
5)	13(17)	5(12)	7(33)	-21%p	2(7)	2(20)	4(21)	2(25)	2(50)

1) not serious at all. 2) not serious. 3) normal. 4) serious. 5) very serious.

교육부 고시 개정으로 인한 운영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74명이 응답하였고,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총 37%로 가장 많았으나, 이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를 차지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심각하다 느끼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대와 전문대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권역별로는 충청, 대경·강원, 동남권에서 느끼는 운영 예산 확보 관련 애로사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남·제주와 수도권 순이었다(Table 8).

Table 8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Securing operating budgets)

(Unit: n(%))

Scale	Total	Uni./College			Regions				
		Uni. (A)	Col (B)	A-B	a	b	c	d	e
1)	2(3)	1(2)	1(5)	-3%p	2(7)	-	-	-	-
2)	12(16)	10(20)	2(10)	8%p	8(27)	2(20)	1(5)	1(13)	-
3)	26(35)	17(34)	8(38)	5%p	11(37)	2(20)	8(42)	2(25)	2(50)
4)	28(37)	20(40)	6(29)	14%p	8(27)	4(40)	8(42)	4(50)	2(50)
5)	6(8)	2(4)	4(19)	-2%p	1(3)	2(20)	2(11)	1(13)	-

1) not serious at all. 2) not serious. 3) normal. 4) serious. 5) very serious.

3. 대학 구분 및 권역별 차이 분석

고시 개정 이후 대학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대학 구분간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Table 9). 전반적으로 전문대에서 일반대보다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담당부서 행정

Table 9 Results of t-test

Items	Type	n	m	sd	t(p)
heavy administrative workload of the department in charge	Uni.	21	3.29	.561	2.070 (*)
	College	50	2.82	.962	
Decreased company participation rate	Uni.	21	3.48	.512	3.435 (**)
	College	50	2.74	.922	
reduction of student practice opportunities	Uni.	21	3.29	.561	2.468 (*)
	College	49	2.73	.953	
finding and managing companies participating	Uni.	21	3.24	.625	3.288 (**)
	College	50	2.64	.851	
securing operating budgets	Uni.	21	2.52	1.078	-0.955
	College	50	2.76	.894	

* = p<.05, ** = p<.01, *** = p<.001

Table 10 Results of ANOVA

Items	Regions ²⁾	n	m	sd	F(p)	Post-hoc
Heavy administrative workload of department in charge	a	30	2.83	.913	.513	-
	b	19	3.16	.688		
	c	10	3.10	1.197		
	d	8	2.87	.835		
	e	4	2.75	.957		
Decreased company participation rate	a	30	2.57	.935	3.291 (*)	2, 3, 5 > 1
	b	19	3.21	.631		
	c	10	3.20	.919		
	d	8	3.12	.835		
	e	4	3.75	.500		
Reduction of student practice opportunities	a	30	2.63	1.033	1.618	-
	b	19	3.16	.688		
	c	9	2.89	.928		
	d	8	3.00	.535		
	e	4	3.50	.577		
Finding and managing companies participating	a	30	2.60	.814	1.609	-
	b	19	3.00	.745		
	c	10	2.70	1.059		
	d	8	3.00	.756		
	e	4	3.50	.577		
Securing operating budgets	a	30	1.93	.980	2.192	-
	b	19	2.58	.769		
	c	10	2.60	1.075		
	d	8	2.62	.916		
	e	4	2.50	.577		

* = p<.05, ** = p<.01, *** = p<.001

업무 가중(p < 0.05), 기업참여율 감소(p < 0.01),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 축소(p < 0.05),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p < 0.01)에서 일반대보다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대학 구분간 차이의 유의미성에 대한 t-test 결과 가설 1-1, 1-2, 1-3, 1-4가 채택되었다. 다만, 현장실습 운영 예산 확보의 경우 전문대-

2) a=Metropolitan, b=Chungcheong, c=Daegyong/Gangwon, d=Dongnam, e=Honam/Jeju

일반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애로사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점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시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문대와 일반대 모두 예산확보 자체보다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시 개정 이후 애로사항에 대한 권역별 차이는 Table 10에서 보듯이, 예상과 달리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1, 2-3, 2-4, 2-5 기각). 유일하게 기업 참여율 감소에서 수도권에 비해 대경·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에 따라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담당부서 행정업무 가중에 대해 권역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의 표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는 모든 지역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현장실습의 기회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이 축소되고 있다(교육부, 2022)는 점이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 축소의 지역별 차이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와 현장실습 운영 예산 확보의 측면은 앞선 t-test 결과 해석에서와 같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시에는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모든 지역에 공통된 지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결과에 기인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분석 결과 요약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Fig. 3과 같다. 교육부 고시 개정 이후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학생들의 실습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고시개정 이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운영부서의 예산 부족 및 행정업무가 가중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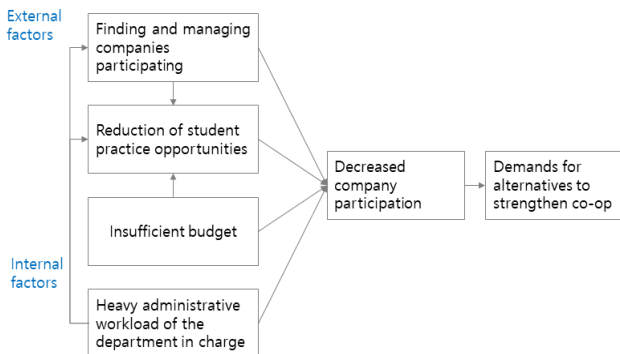


Fig. 3 Summary of analysis results

고 있는데, 이는 다시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현장실습 학기제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 고시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반대와 전문대 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일반대학은 교육부 고시 개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현장실습 참여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 및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고시 개정 이후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 및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V. 결론 및 제언

1. 향후 정책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 및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고시 적용의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실습학기제 기업 참여율, 학생 실습 기회 감소와 관련해서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대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및 비수도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여유로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중소·영세기업과의 협력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실습기관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실습지원비 기준을 수도권 대학 및 일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정책 또는 국고지원 형태의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대 현장실습학기제 업무협력 협의체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에 있어서 일반대에 비해 현장실습 관련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전문대에서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학별 현장실습학기제 담당자의 핵심업무 보다는 행정업무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현장실습의 내실화와 참여학생 권익 강화라는 고시 개정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전문대 현장실습학기제 중점대학 형태를 통해 전문대 간 업무협력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 위탁 고용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업무량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직무교육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2021년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르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직무교육시간 비율을 2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지원비에 비례하여 직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확하게 ‘직무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집합식 직무교육만을 직무교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 직무교육도 직무교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 교육부 고시 개정은 직무교육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업무 지시 및 지원도 직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더욱 불명확한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이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소재 대학 및 전문대학은 이들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집합식 직무교육, 온라인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여유 인력이 많지 않고 당연히 직무교육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실습 초기 1~2일의 업무 소개 이후에는 개인에 의한 비정기적 업무 지시 및 업무상 문제해결 지원이 이루어진다. 즉, 이러한 활동을 직무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 측면으로는 고시개정 이후 현장실습학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간 일 통합학습이나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직무경험 관련 제도들의 시행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다양한 효과에 대해 다루어 왔다. 반면, 고시개정이라는 정책의 변화가 대학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교육부 고시개정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대학 구분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는 대학과 참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특히, 동일한 정책이라도 대학의 상황이나 유형 등에 따라 미치는 효과는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들을 대학의 구분 및 지역에 따른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고시 개정 이후 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담당부서 업무 기증,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 축소,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 제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공학 분야의 현장실습은 다른 계열에 비해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보편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장기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2018년까지 매년 급증하였으며, 공학계열의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전체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김동태,

2018) 다른 분야에 비해 공학교육의 내실화 측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첫째, 본 연구는 교육부 고시 개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대학의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현상의 이론적 해석 및 설문지 작성 등에 있어 학문적인 엄격성이 다소 부족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론 개발 및 정교한 변수 측정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단순히 집단 차이를 넘어 변수 간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구분 및 권역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집중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 학생의 취업률,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만족도 등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장실습학기제의 또 다른 주체인 참여기업의 의견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고시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실습지원비 인상에 있고, 이는 참여기업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상의 각종 애로사항(참여기업 발굴, 기업 참여 유도, 학생 실습기회 축소 등)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객관적인 연구가 시급하며, 그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기업 규모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업 규모별 실습지원비 차등 적용) 또는 캐나다 워털루대학의 세제 지원과 같은 정책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대학의 인식을 연구하였으나, 교육부 고시 개정의 파급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 연구과제(2022-13)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참고문헌

1. 강경중·이종상(2003). 전문대학 현장실습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연구*, 22(2), 43-68.
2. 교육부(2021). 2022년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계획(안).
3. 교육부(2022). 고등교육법
4. 교육부(2022). 수도권·지방대학 주요 교육지표 현황.
5. 교육부(2023). 고등교육법 시행령
6.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2). 2022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7.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2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8. 김동태(2018). 공학계열 장기현장실습(IPP) 참여자 반응 및 행태분석.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0(2), 131-137.
9. 박철우 외(2014). *벌거벗은 공학교육과 산학협력*. 파주: 푸른사상.
10. 서울경제(2021). “열정페이 없애려다 인턴까지 없애나”... ‘땀질 처방’식 대학 현장실습 개선책. 2021년 8월 16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316BCQK>
11. 이문수 외(2011). 미국 및 캐나다 Co-op 프로그램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3(2), 121-127.
12. 이병렬 외(2021). 대학 장기 현장실습제도(IPP)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
13. 장후은·허선영·이중호(2017).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정책 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2), 493-500.
14.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19). *코리아텍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IPP의 장기적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21). [보도자료] 2021년 상반기 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지표 분석 발표.
16. Guest, D. E.(2004). The Psychology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 Analysis Based of the Psychological Contract. *Applied Psychology*, 53(4), 541-555.
17. Cullen, M.(2005). Environmental Science Cooperative Education: Benefits for the Student, the Host Organization, and the Study Program. *Asia-Pacific Journal of Cooperative Education*, 6(2), 1-6.
18. Kemp, C. et al.(2021). How Do Students Offer Value to Organisations Through Work Integrated Learning? A Qualitative Study Using Social Exchange Theory.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26(3), 1075-1093.
19. Khampirat, B. & Mcrae, N.(2016), Developing Global Standards Framework and Quality Integrated Models for Cooperative and Work-Integrated Education Programs.

20. Rowe, A. D & Zegwaard, K. E.(2017). Developing Graduate Employability Skills and Attributes: Curriculum Enhancement Through Work-Integrated Learning. *Asia-Pacific Journal of Cooperative Education*, 18(2), 87-99.
21. Smith, J et al.(2019). *Enabling and Evidencing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Through WIL*. Australian Technology Network.



김태형 (Kim, Tae-Hyung)

2019년: 영국 레딩대학교 경영학 박사
 2021년~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현장실습, 인사관리, 국제경영
 E-mail: cpkim1@koreatech.ac.kr



유영삼 (Yoo, Youngsam)

2020년: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 박사
 2021년~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 박사후연구원
 관심분야: 심리측정, 역량교육, 역량평가
 E-mail: netgen00@koreatech.ac.kr



박지성 (Park, Jisung)

2016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
 2017년~현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E-mail: jspark1@cnu.ac.kr



황의택 (Hwang, Eui-Taek)

2015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2021년~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PP센터 부센터장
 관심분야: 현장실습, 인사조직
 E-mail: ethwang@koreatech.ac.kr